

황찬현 청문보고서 채택 무산... 정국 경색 심화

(감사원장 후보)

민주, 문형표 복지장관 후보 사퇴와 연계

새누리 “野 제안 수용 불가... 기다리겠다”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전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민주당이 14일 법안카드의 사적유용 의혹이 불거진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의 거취문제를 황찬현 감사원장·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문제와 연계기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론에서는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일단 수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1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의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감사원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는 등 정국경색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할 경우 황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와, 본회의 인준 절차가 필요없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한 뒤 전병헌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명의 후보자가 모두 부적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문 후보자는 도덕성과 자질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면서 “박근혜정부가 제3의 인사참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문 후보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요구를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전달했고, 정부 여당의 입장을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입장은 오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여론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앞서 문 후보자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인사청문회에서 법안카드의 사적유용 의혹이 제기됐고, “사적으로 법안카드를 쓴 게 밝혀지면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그만둘 것인가”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여론은 즉각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일단 수용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입장이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초 이날 오후 감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감사원장후보자 인사청문특위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감사원장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오늘 황 감사원장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

고자 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다”며 “새누리당은 단독으로도 처리할 수 있었지만 야당과 합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자세로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에는 처리해 주지 않으려는 의도 같다”면서 “시정연설이 있고 나면 다른 명분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임명동의안 처리에 나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김정수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오전 국회 운영위에서 열린 대통령 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필뉴스

김진태 후보자 “별건수사 않겠다”

대화록 유출 관련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조사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가 지난 13일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해 현재 진행 중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는 물론 기업을 수사에서도 적용되는 등 수사관행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밤 늦게까지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당 박지연 의원이 “검찰총장 내정자가 특수부 수사를 지금까지 너무 밀어붙였다. 그리고 너무 거칠다. 앞으로 별건수사는 하지 않겠다. 암수사색과 무차별 소환 등 저인망수사 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 이던 다시 말해서 강압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냐”고 묻자, “그렇습니다”고 답

했다. 그는 또 “(별건수사·강압수사 안 하겠다는 말) 국민 앞에 약속하라”고 요구하자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의혹 수사에 대해서도 별건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김 후보자는 최근 한 자리에서 “검찰 수사는 드러난 범죄에 대해서만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내는 식으로 해야지 피의자의 모든 범죄를 다 밝혀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평소에도 ▲별건수사 ▲저인망 수사 ▲장기수사 등은 문제가 많으며 이런 수사는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수시로 밝혀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후보자는 이날 또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의 사전 유출·불법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는 “검찰총장이 되면 철저히 따져 필요한 사람은 반드시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박지연 의원의 대안제안 관련 수사는 “수사 의의가 있는가. 엄정한 수사를 할 것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변했다.

“국정원도 불법을 저지르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남 원장도 예외가 아니지 않은가”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이날 검찰 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해 수사 의의가 있는지 묻자 “네”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경호실 3급이상 간부 절반 ‘영남출신’ 공공기관장 34명 ‘낙하산 인사’ 추궁

대통령비서실 등 3곳 국감

국회 운영위원회의 14일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산·경남(PK) 지역에 편중된 인사문제, 국가기관의 대안제안 및 관련 수사는 폐의 의혹 등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인사 전횡 문제 등을 집중 거론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청와대의 입장을 옹호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경호실 3급 이상 간부 39명 가운데 영남 출신이 59%(23명)를 차지한 반면 수도권 출신이 15.4%(6명), 그 외 지역 출신이 25.6%(10명)에 불과하다”며 “경호실 인사가 특정 지역에 편중됐음을 따져

민주당 전혜철 의원도 김 비서실장에게 감사원장직과 검찰총장직 사전 내정설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같은 당 장하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공공기관장 78명 가운데 45%(34명)가 낙하산 인사였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 비율 32%를 훨씬 웃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홍경식 민주당 수석의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지면서 한때 정회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중도 사퇴와 국가정보원의 대안제안 의혹 등을 추궁하기 위해 홍 수석이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새누리당은 “의혹 부풀리기용” 정치 공세라고 맞선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 ‘박근혜표 예산’ 삭감 추진

‘부자감세’ 철회 촉구 등 ‘예산전쟁’ 예고

민주당이 ‘박근혜표 예산’ 삭감을 추진하는 가운데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방침이고 있어 치열한 ‘예산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14일 민주당 “2014 예산안 심사전략”에 따르면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355조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 가운데 삭감 대상으로 ▲‘박근혜표’ 예산 ▲불법 정치개입, 대국민 교육사업 예산 ▲국정청·경찰청·경찰청·국세청 등 권력기관 예산 ▲특정 지역 편중예산 등을 정했다.

‘박근혜표 예산’에는 개발도상국 새마을운동 확산 사업(올해 111억원→2014년 227억원), DMZ 평화공원 조성사업(신규 402억원), 청년창업엔젤펀드(1000억원), ‘위풍당당펀드’ 코리아 펀드(7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88올림픽고속도로(대구, 2000억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부산, 2092억원) ▲포항영덕고속도로(경북, 98억원) 등을 ‘특정

지역 편중예산’으로 분류하고 삭감 대상에 포함했다.

반면 민주당은 무상보육·급식에 대한 지원을 확대(약 1조원 추가 소요)하며, 경로당 난방비(내년 예산 시 반영)·가습기 살균제 피해자(108억원)를 지원하고, 쌀 변동 직불금 목표 가격을 19만6000원으로 인상(올해 252억원→2014년 1050억원)하기로 했다.

민주당 장병만 정책위의장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가부도, 지방재정 과탄으로 내모는 재정운용 기조를 개혁하고 MB(이명박)정부의 감세조계 계승을 포기한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그래야 내년도 예산안이 원만히 처리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박 대통령은 부자감세로 혜택을 보는 재벌, 대기업, 고소득자 과세 강화로 세입기반을 확대한다는 방침을 시정연설에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주승용·이용섭·이윤석·백군기·김광진·주영순 의원 포함

여야,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자 60명 확정

여야는 14일 오는 19일부터 닷새간 실시되는 정기국회 대정부질문과 관련, 총 60명의 질문자 명단을 확정했다. 대정부질문은 19일 정치 분야에서 시작으로 20일 외교·통일·안보, 21~22일 경제, 2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걸쳐 진행된다.

대정부질문에는 의제별로 12명씩, 60명이 나서며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30명, 민주당 25명, 비교섭단체 5명 등이다.

다음은 대정부질문 의원 명단. ▲정치 분야(19일)=김성태 노철재 김을동 이철우 김동만 이상우(이상 새누리당), 원혜영 신계륜 추미애 양승조 전해철(이상 민주당), 서기호(정의당) ▲외교·통일·안보(20일)=정몽준 원유철 유기준 황진희 이안영진 송영근

(이상 새누리당), 안구백 이상호 백군기 진성준 김광진(이상 민주당) 이상규(통합진보당)

▲경제(21일)=나성민 박상은 강석호 김한표 주영순 이우현(이상 새누리당), 최재성 김영주 이윤석 홍종학 부자현(이상 민주당), 김재연(통합진보당)

▲경제(22일)=서병수 민병주 김태원 이재재 윤명희 전진진(이상 새누리당), 주승용 이용섭 김현미 박수현 박민수(이상 민주당), 강동원(무소속)

▲교육·사회·문화(25일)=강길부 김재경 권성동 정문헌 경대수 김기선(이상 새누리당), 도종환 최민희 유은혜 김성주 박용근(이상 민주당), 정진후(정의당)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진보당 오늘 국고보조금 예정대로 지급

활동정지 가져분신청 받아들여져도 환수는 못해

통합진보당이 정부의 활동정지 가져분신청에도 불구하고 15일 예정대로 올해 4분기 국고보조금 6억8000여 만원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는 14일 “새누리당과 민주당 등 4개 정당에 대해 15일 올해 4분기 국고보조금 99억8000여 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정당별 지급액은 새누리당 43억

4000여 만원, 민주당 38억5000여 만원, 통합진보당 6억8000여 만원, 정의당 5억여 만원 등이다.

선관위는 “15일 이후에 현재가 통합진보당 활동정지 가져분신청을 받아들여도 국고보조금을 환수할 수도 없다”고 선관위는 덧붙였다. /연필뉴스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6개>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3타경 7456	1	목포시 상동로 43, 203동 3층 305호 [상동, 상동2단지아파트] 38.64㎡	아파트	46,000,000	임차인있음
2013타경 7616	1	목포시 남악2로22번길 10, 107동 16층 1601호 [목양동, 한라비발디] 114.63㎡	아파트	326,000,000	
2013타경 7326	1	목포시 산정동 1040-141 50㎡ 목포시 신촌로20번길 9-1 26.45㎡	대지/단독주택	21,976,300 / 21,976,300	일괄매각, 제시의 건물포함 [층속2층 주택 25.2㎡]
2013타경 8305	1	신안군 지도읍 당촌리 385 271㎡ 신안군 지도읍 당촌길 23 66.87㎡	대지/단독주택	15,524,100 / 15,524,100	일괄매각, 제시의 건물포함
2013타경 1946	1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620 1266㎡	전	18,483,6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3타경 2932	1	신안군 팔금면 원산리 산34 19026㎡	임야	19,026,000	분묘소재, 분묘기 지권성립여지있음
2013타경 4761	1	영광군 삼호읍 산호리 438 936㎡	전	69,792,000	수목포함
	2	동소 452 787㎡	담	59,812,000	
	3	동소 산55-1 1653㎡	임야	137,541,000	일괄매각, 분묘소재, 분묘기 지권성립여지있음
	4	동소 산55-3 760㎡	임야	137,541,000	
2013타경 5306	1	영광군 삼호읍 용당리 산83 1157㎡	임야	38,181,000	
	2	신안군 흑산면 예리 산144 10712㎡	임야	9,355,200	일괄매각

매각 물 건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 원]	비고
2013타경 5528	1	영광군 삼호읍 용당리 216-1 640㎡	담	203,614,000	일괄매각
	2	동소 216-16 241㎡	담		
	3	동소 216-15 336㎡	담		
2013타경 5924	1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1600 4975.9㎡	담	353,288,9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함평군 대동면 백옥리 983-1 1805㎡	담	353,288,900	농지취득자격증명
2013타경 7197	1	함평군 신광면 보어리 560-3 795㎡ [한기요지분2부의1천부]	담	11,250,0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우선매수행사 제한있음
	2	함평군 신광면 송사리 564-2 2532㎡ [목욕과과지분동일]	전	11,250,000	
2013타경 7753	1	신안군 압해읍 송골리 산177-1 1149㎡	임야	36,660,000	일괄매각
	2	동소 산177-4 345㎡	임야	36,660,000	
2013타경 7876	1	무안군 현경면 해리리 1432-13 1383㎡	담	13,691,700	농지취득자격증명
	2	신안군 지도읍 을대리 587 52㎡	전	1,563,800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요, 공유자우선매수행사 제한있음, 안영기 지분10분의1천부
2013타경 8008	1	동소 602 1408㎡	담	1,563,800	
	2	동소 605 11㎡	담		
	3	동소 606 21㎡	담		
	4	동소 607 151㎡	담		
2013타경 8244	1	신안군 정계면 상마리 908 1078㎡ [공유자 강현원지분전부 3분의1]	전	7,186,666	농지취득자격증명 요, 공유자우선매수권제한있음
	2	동소 804 15㎡	담	7,186,666	
[상가/오피스텔, 근린시설]					
2013타경 4570	1	무안군 문남면 내리 1005-126 236㎡	대	39,877,600	일괄매각, 임차인있음
	2	동소 1005-126 주택및소매점 66.4㎡	주택등	39,877,600	있음, 비매각제시 의견있음
2013타경 7517	1	목포시 상동 1004-4 428.9㎡	대	1,270,908,730	일괄매각, 임차인있음
	2	목포시 통일대로37번길 34 지하1층345.12㎡ [음식점및주차장] 1층309.77㎡ [음식점및소매점] 2층309.77㎡ [사무실] 3층309.77㎡ [학원] 4층199.53㎡ [주택]	근린시설 및주차장	1,270,908,730	있음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재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특별매각조건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기대수익인이 매각물건취득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인으로부터 반환하지 않고 이를 매각사 내역대금에 산입한다.

2. 매각 기일 : 2013. 12. 9. [월] 10:00

3. 매각절차기일 : 2013. 12. 9. [월] 14: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0호 경매법정

5. 매각방법
입찰방식에 비하여 기일당첨표에 서기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의 등을 기재하고 납입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된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고매각가격의 1% [1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증금의 자기기부금 또는 현금 준비비거나 지급보증금의 액을 채권한 문서(입찰 보증서)를 준비하여 한다.

① 2인 이상 공모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모입찰기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입찰방투의 봉투에 정해진 규격과 제형을 준수하여 봉투의 기재사항을 일정한 서형으로 최고기대수익인으로서 영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기입찰을 실시한다.

③ 최고기대수익인과 추기입찰을 실시한 다른 매수신청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결과가 종료되는 즉시 반환한다.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물건취득에 매각허가 여부와 최종으로 결정하고, 매각물건취득에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대금지급기한은 최종 매각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된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매각허가 취소한다. 다만, 매각결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정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지상권, 가압권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된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및 지상권이나 가압권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적부와 지방공채를 납부한 후 등적세영수확인서 및 등적세영수확인서 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이 위 등기를 축약하여 준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행위는 부동산 소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담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8. 주의사항
① 매각권 주체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우위의 지상권 등이 설정된 날로부터 만주 주민등록인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나, 사업 목적상행용 중인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 매수인이 인수하여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② 입찰방투의 봉투에 정해진 규격과 제형을 준수하여 봉투의 기재사항을 일정한 서형으로 최고기대수익인으로서 영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만을 상대로 추기입찰을 실시한다.

③ 특별매각조건에 내용은 매각물건취득자의 명칭을 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④ 입찰방투에 나오는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⑤ 소유권이전 등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기대수익인으로서 결정된 후 매각물건취득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된다. 단,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다.

⑥ 공고된 물건은 매각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집행이 취소되거나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된다.

⑦ 산에 응급되는 물건의 매각기일이 변경되는 물건의, 수확사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청명령을 하지 않으므로 무리반은 계사민 의 공고나 법원에 비하여 매각물건취득자를 통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나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⑨ 매각의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ction.go.kr [법원공고] - 법원매각정보센터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정보 제공과도 연계되어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를 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취득신청이나 승계명령의 청구 등 불수행으로, 경매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서서 매각기일 의 공고나 비합의 매각물건취득자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수 있습니다.

2013.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법보좌관 이영복